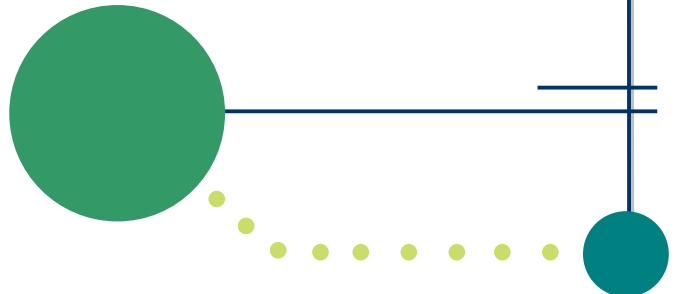




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

- 광고용 게임 전문 강좌, 브라질서 개최
- 브라질 Tectoy Mobile, 현지 가수 소재 음악게임 출시
- 온라인 축구게임 ProSoccer, 브라질 서비스 중단



광고용 게임 전문 강좌, 브라질서 개최



● 광고용 게임(advergamos) 강좌, 브라질에서 3번째 열려

- ◆ 광고(Advertising)와 게임(Game)을 접목시킨 광고용 게임에 관한 전문 강좌가 지난 10월 17일 브라질 상파울루(Sao Paulo)에서 개최됐다고 현지 언론 Game Reporter가 보도함
 - 3회째를 맞는 이번 강좌(Creating Advergamos)는 디지털 게임의 역사, 광고용 게임의 수익 실현 방안, 게임 로드맵 구성, 캐릭터 및 관련 배경 제작, 광고용 게임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게임 디자인, 실제 게임제작 등 6가지 과정으로 구성돼 있음
 - 참가비는 수료증 수수료 및 간식비 포함 190 달러이고 총 3명의 강사진이 한 강의당 4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음

● 배경

- ◆ 광고용 게임은 특정 브랜드/상품 관련 메시지가 결합된 무료 게임으로 사용자들의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유도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주목 받고 있음
 - 디지털 광고용 게임은 플로피디스크가 저장매체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도 이미 존재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,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 발매에 맞춰 배포했던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
- ◆ 아울러 PC, 콘솔, 모바일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널리 활용 가능해 선진시장은 물론이고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

브라질 Tectoy Mobile, 현지 가수 소재 음악게임 출시

🌐 Tectoy Mobile, 브라질 밴드 음악 소재의 모바일게임 출시

◆ 브라질의 모바일게임업체 Tectoy Mobile이 음반업체 Deckdisc와 제휴해 현지 하드록 밴드 Pitty의 신곡을 소재로 모바일게임 'Chiaroscuro'를 출시함

- 현재 브라질 주요 이동사를 통해 10달러 가량에 다운로드 가능.
- Tectoy Mobile의 João Marcos Oliveira MD는 "Pitty는 Twitter 등 SNS 채널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있는 음악 밴드"라며, "이번 신작 게임으로 게이머뿐 아니라 음악 애호가의 관심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전했다.

🌐 게임 소개

◆ Tectoy Mobile은 Pitty의 앨범에 담긴 곡들을 분위기 등에 따라 세 개의 미니게임과 접목한 점이 특징

- 'Na Pele de Mulher'는 'Desconstruindo Amélia'라는 곡에서 영감을 얻어 사랑이나 일, 직업 등 다양한 의미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배열하는 방식의 게임
- 'Enfrentando o Medo'는 'Medo'를 주제로 밴드의 보컬인 Pitty가 자신의 환영과 대결을 펼치는 게임이며, 'Rato na Roda'는 Pitty의 콘서트 도중 열성팬이 경호원을 따돌려 무대로 난입한다는 내용임
- 이외에도 해당 밴드의 팬이 Pitty와 함께 노래하는 내용의 액션게임도 수록되어 있음

◆ 각 미니게임을 완결하면 음반 수록곡 일부가 midi 포맷의 전화 멜로디로 해제되어 들을 수 있게 되는 등 모바일게임 특유의 콘텐츠 활용법이 눈길을 끄

 www.ttmobile.com.br  www.deckdisc.com

온라인 축구게임 ProSoccer, 브라질서 서비스 중단

업데이트 미흡이 직접적인 이유



- ◆ 브라질의 게임업체 Gamemaxx가 온라인 축구게임 ‘ProSoccer’의 현지 서비스를 오는 10월 30일을 기해 종료할 예정이라고 현지웹진 Terra Games가 지난 19일 보도
- ◆ 이에 대해 Gamemaxx는 ‘해당 게임의 개발사인 Sliver Spoon Studio가 계약 내용과 달리 올해 들어 업데이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 서비스 중단의 이유’라고 설명, 퍼블리셔와 개발사 사이의 불화 가능성을 시사했음
 - 회사 측은 ‘유저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부득이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’며 ‘이 게임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서비스 종료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’고 덧붙임
 - Gamemaxx는 2007년부터 국산 MMORPG ‘카발온라인’(이스트소프트)을 브라질 시장에 서비스하고 있으며, 지난 6월에는 Sanrio Digital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‘Hello Kitty Online’을 제공

 www.gamemaxx.com.br